

# 이 유

## 1.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 인접한 00동 2-17번지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 먼지, 진동과 땅을 파는 과정에서 하수구가 파열되었다.
- 이를 2018.10월~2019.01월까지 방치하여 피신청인의 대지 위에 연못처럼 물이 고였고 그로 인해 신청인의 대지에 오수가 흡수되어 지하 건물에 악취와 습기, 곰팡이가 발생하였다.
- 또한 철거과정 중 신청인의 담벼락이 파손되어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 나. 피신청인 주장

- 당사는 2018.7.2.일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8월경 착공 신고 등 행정절차를 밟아 9월28일경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신청인이 2017년12월에 철거과정 중 발생한 피해회복에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당사의 굴착공사시 하수관로가 파열되고 방치되어 오수가 신청인의 대지로 유입되어 지하층에 악취, 습기, 곰팡이 피해 및 벽과 바닥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10.11.일 흙막이 공사중 00동 2-49 건물의 하수관로가 공사장에 묻혀 있음이 확인되어 하수관로 이설작업 과정에서 흘러나온 하수를 즉시 양수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물고임 사진은 추측해보건대 2018년 12월초에서 2019.01.12. 사이에 촬영된 사진이 확실하며, 그 물은 하수가 아닌 신청인의 우측가옥(00동 2-49)의 노후 수도관 파열로 누수된 수돗물이다.

- 2018년 12월초부터 공사장에 원인모를 물이 고여 매일 양수하던 중, 2019.1월초 신청인의 옆집(00동 2-49) 주인이 평소보다 과도한 수도요금이 나와 수도누수탐지업체로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2019.1.12일 민원관리 차원에서 보수공사를 해주었다.
- 또한 신청인의 주장대로 고인물이 신청인의 건물 지하로 들어가 피해를 주어야 하나, 물이 고인 피신청인 공사장 터파기 저면의 수위레벨은 GL+30.20이고, 신청인의 지하층 바닥레벨은 GL+32.6로서 고인물보다 2.4m 높은 지하층으로 흘러 올라가 피해를 주었다는 것은 설명이 안되며, 아울러 이러한 사항을 수차례 건축감리와 현장대리인이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
- 공사 중 소음, 진동, 분진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외부 EGI웬스, 홀딩도어 및 분진망 설치, 고압살수기 설치 운영하였다.
- 신청인의 민원 제기로 관할 구청에서 소음측정 결과 67dB(A)로 허용기준치를 2dB(A)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신청인과 접한 방향에 부직포 및 PP천막을 설치하여 방음분진 방지시설에 대한 보완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시간 조정, 소음발생행위의 분산 등으로 소음,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2. 사실조사 결과

### 가. 분쟁지역 개황

- 신청인 거주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은 전형적인 주거용 주택 등이 혼재되어 밀집된 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 거주지는 00로76길에 접하고 있으나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아 일반적인 생활소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비교적 정온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 공 사 명 : 단지형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 공사위치 : 00동 2-17,18,59,72,73
- 규 모 : 지상 5층(3개동,24세대)
- 연 면 적 :  $1,965m^2$  (일반주거지역)
- 공사기간 : 2018.9.~ 2019.6.

##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 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평가

- 소음원인 피신청인 공사현장과 수음점인 신청인 거주지와 이격 거리는 제출된 자료 확인, 도상실측, 현지 확인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공사현장 부지를 기준으로 신청인 거주지까지의 최단거리, 중앙지점, 최장거리 등을 확인하고, 해당 공정별 장비가동 및 작업 위치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기간별 공사내용 및 장비투입내역에 의하면 부지정리작업시 포크레인, 흙막이공사(1)시 포크레인, 오거, 콤팩트레샤, 흙막이공사(2)시 포크레인, 전주오거, 토사반출작업시 포크레인, 덤프트럭, 골조공사시 펌프카 등의 장비를 투입하였다.
- 투입 장비별 음향파워레벨은 환경분쟁조정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설기계류 소음도 평가 현실화 방안 연구, 201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건설장비 및 기계류의 소음·진동도 조사연구사업 결과보고서, 201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계류 소음특성, 2003,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참고하였다.
- 건설기계장비의 위치와 신청인 거주지 건물까지의 이격거리는 부지정리, 흙막이공사, 토사반출 공정은 33.2m, 골조공사시 40m를 적용하였다.
- 피신청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부지경계에 EGI웬스와

상단에 방진망 등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신청인 공사 현장에서 신청인 거주지까지의 소음전파경로상 회절감쇠효과와 각 공정별 방음웬스가 저감할수 있는 회절감쇠효과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약 3dB(A)정도의 감쇠특성을 반영함

[표] 공종별 투입장비에 의한 신청인 거주지에서의 소음도

□ 신청인 거주지에서의 초과소음도 및 초과일수

초과소음도			
계	1이상 ~ 5이하	6이상 ~ 10이하	11이상 ~ 15이하
8일	8일 (흙막이공사)		

- 각종 자료(「건설기계류 소음도 평가 현실화 방안 연구, 201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건설장비 및 기계류의 소음·진동도 조사연구사업 결과보고서, 201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계류 소음특성, 2003,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하면, 등가진동 레벨 기준 약 7m 이격거리에서 생활진동 규제기준[65dB(V)]을 초과하는 건설기계류는 진동롤러, 탬핑롤러, 법면다짐기, 항타기, 진동항타기, 브레이커(500kg 이상), 유압직타공법, 압쇄기(동시작업), 불도저(25T(덤프,진동롤러)), 그레이더(덤프,롤러포함) 등이다.
-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신청인 거주지까지 전달되어 미치는 환경진동 영향은 환경기준상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본 검토에서는 지반여건 고려 등 제한적인 요소 등으로 인해 정량적 검토는 제반 한계가 있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서, 피신청인 공사현장과 신청인 거주지까지의 전달경로상 입지여건 등과 통상의 공사 사례를 참고해 볼 때 인체에 미치는 생활진동 규제기준과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환경진동 유발요인은 확인할 수 없었다.

##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평가

-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토사먼지 및 공사먼지가 비산하여 신청인 거주지를 포함한 주변지역까지 확산되는 농도를 정량적으로 검토하기에는 현 여건에서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지만, 행정처분(수송차량의 측면살수 미흡 등 개선명령)내용, 신청인의 의견서, 통상의 공사사례 등을 참고해 볼 때 토공사 등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신청인 거주지측에 일시적이거나 토사먼지 및 공사먼지의 비산이나 확산으로 인한 생활환경상의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행정처분(개선명령) 이후 고압살수기 설치, EGI헨스, 홀딩도어 및 분진망 설치, 방진망(부직포) 및 PP천막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판단

### 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건설기계장비 사용으로 인한 신청인 거주지에서의 예측소음도가 68dB(A)로 공사장 소음 수인한도고려기준을 초과하여 신청인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장 진동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서, 피신청인 공사현장과 신청인 거주지까지의 전달경로상 입지여건 등과 통상의 공사 사례를 참고해 볼 때, 인체에 미치는 생활진동 규제기준과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환경진동 유발요인은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은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수송차량의 측면살수 미흡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그로 인한 피해 및 행정처분(개선명령) 이후 비산먼지 방지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어 저감효과가 있었다면, 일시적인 토사먼지 발생이나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 **5. 배상수준 검토**

###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00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 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규정에 의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이 수인한도고려기준을 초과하는 피해를 받은 신청인 000 등 8명에게 배상한다.

### **다. 배상금액 검토**

-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1,856,000원, 재정 수수료 5,520원을 포함하여 합계액 1,861,520원이다.

## **6. 결론**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결과, 관련서류, 전문가 의견,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